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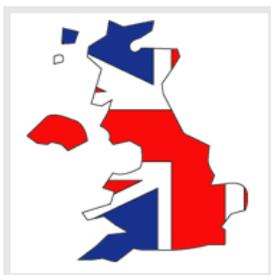
4/23 “세계 책의 날” 이란 ?

국제출판인협회가 스페인정부를 통해 유네스코에 제안한 책의 날에 러시아 공화국이 제안한 저작권의 개념이 포함되어 1995년 2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매년 4월 23일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4월 23일은 스페인과 영국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의 서거일이기도 한데 이날 전 세계 30여 나라에서 다양한 독서 행사와 이벤트로 책 잔치를 벌입니다.

원래 세계 책의 날은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니아 지방의 책과 장미 축제에서 비롯되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과 함께 붉은 장미를 선물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세계의 책 읽기 운동에 대해 알아보까요?



영국의 'Book Start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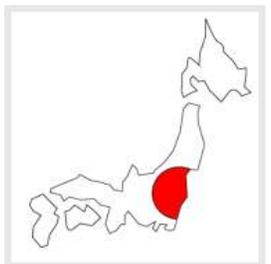
영국은 92년 독서 추진 단체인 ‘북 트러스트 협회’를 중심으로 ‘북 스타트 프로젝트 (Book Start Project)’를 추진 중이야. Book Start Project는 읽고 쓰는 능력의 저하, 상상력의 결여, 옳어진 부모 자식 관계 등의 문제를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버밍햄 도서관, 남쪽 버밍햄 보건국, 버밍햄 대학 교육학부가 하나가 되어 시작되었지.

이 프로젝트에 의하면 생후 7~9개월 된 유아의 부모들은 유아 건강진단 때 두 권의 유아용 도서와 독서교육 안내문, 지역 도서관 초청장 등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무료로 제공받는다고 하네.



독일의 책과 미디어의 공존전략

독일에서는 TV와 인터넷 등으로 사람들의 독서량이 매우 줄어들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독서의 적'이라 생각됐던 이러한 매체를 독서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해. 또한 ‘세계 책의 날’엔 40명의 작가가 모여 12시간 안에 96쪽 분량의 책 한 권을 만들어 내는 신기록에 도전하기도 했다는데, 12시간 안에 글을 쓰고 편집부터 인쇄까지 마쳐서 서점에 내놓는다는 계획이었는데 과연 가능했을까?



일본의 ‘아침 10분 독서운동’

일본 마이니찌 신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 초등학생은 1년에 91권의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초등학생 독서량 23.3권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읽지? 그런데도 일본은 최근 더욱 초등학생 독서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네.

오전 수업 시간 전 10분간 학생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읽히는 것이 바로 아침 10분 독서운동이야. ‘아침 독서’는 책을 읽는 효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켜 수업 태도를 바르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장점이 많은 것 같아. 약 만 여개의 초등학교에서 ‘아침 10분 독서운동’을 한다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미국의 '한 도시 한 책 읽기'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1998년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 사서인 낸시 펠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어. 이후 시애틀에 이어 시카고 등에서 잇따라 도입돼 미국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 90여 도시로 확산되었지. 영국과 캐나다도 이를 도입하여 책 읽기 문화를 새롭게 바꿔나가고 한다니 그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니?

참고로 2003년에는 우리나라 작가 이창래 씨의 『제스처 인생』을 선정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문학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았어.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 정책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 중 하나가 브라질이야. 벌써 알고 있었다고?

브라질 중에서도 꾸리찌바라는 시에서는 저소득 지역 곳곳에 '지혜의 등대'라는 도서관을 세웠어. 가난한 시민들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별을 없애고 정보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워졌는데, 초등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책도 빌리고 문화생활을 즐긴다니 정말 잘 되었지?

누구나 읽고 싶은 책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어. 또 도서관이 등대 모양을 하고 있다니 정말 아름답겠지



프랑스의 '책과 방송의 아름다운 공존'

우리나라 방송에서 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 적 있니?

프랑스 2TV에서는 매주 두 시간 씩 프라임 타임 대에 '부이용 드 쿨튀르(Bouillon de Culture)'라는 독서 프로그램이 방영된다고 하네. 비슷한 주제로 책을 쓴 저자들을 5-6명 초청해 저자들의 생각을 듣고 토론하는 프랑스 최고 권위의 독서 토론 프로그램인데, 20년이나 넘게 지속되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시청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



스페인

투우와 함께 정열의 나라로 알려진 스페인에서는 '세계 책의 날'과 함께 '책과 장미의 축제'가 펼쳐져,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과 함께 붉은 장미를 선물하는 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니 부러워. 이때 책은 고결한 '지성'의 상징이고, 장미는 숭고한 '아름다움'의 상징이래. 도시 곳곳에선 저마다의 손에 책과 장미를 든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쏟아져 나와 거리에 서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다니 나중에 꼭 한 번 가봤으면 좋겠어.

마을 어귀에 있는 광장이나 공원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저자가 직접 책을 가지고 나와 '세계 책의 날'기념 특별판매 행사를 펼치는 등 '책'과 함께 도시 전체가 흥분과 감동으로 물들어 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행복해진다.